

광주비엔날레 출신 작가·기획자 ‘파워100인’ 올랐다

아서 자파 등 7아트리뷰에 등재
광주비엔날레 국제적 위상 명성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들이 영국 유명 매체인 아트리뷰에서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들을 발표하는 ‘파워 100인’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와 기획자들도 포함돼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아트리뷰가 매년 12월 1일 공개하는 ‘파워100’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를 비롯해서 역대 기획자, 참여 작가가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였던 아서 자파, 다야나타 싱, 에드가 칼렐, 나임 모하이멘, 캔디스 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를 기점으로 국제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공간 중 하나인 무각사에서 ‘모나와나(2013)’ 영상 작품을 선보였던 다야나타 싱과 광주비엔

날레 전시관 3전시실에서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설치작품 ‘고대 지식형태의 메아리(2023)’를 선보인 에드가 칼렐은 지난 2022년 처음 100위권으로 진입했으며 올해 각각 78위와 79위를 기록했다.

예술공간 집에서 ‘졸 도베 나(익사하지 않는 사람들·2020)’ 영상을 선보인 나임 모하이멘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리튬 공장의 섹스 악마들(2023)’ 설치작품을 구현한 캔디스 린은 올해 새롭게 100위 안에 진입해 각각 81위와 85위에 올랐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위에 올랐던 아서 자파는 이번에는 3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 사진, 설치 작업을 아우르는 작품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아가는 현실을 사유했던 아서 자파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애도와 비판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LOML(2022)’ 영상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거쳐 갔던 역대 참여작가들의 행보도 두드러졌다.

이번에 2위를 기록한 히토 슈타이얼은 2016년 제11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고, 3위를 차지한 리크리트 티라바니지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중 하나인 에드가 칼렐 작 ‘고대 지식형태의 메아리’. 에드가 칼렐은 아트리뷰가 선정하는 ‘파워 100’인에서 79위에 올랐다.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다.

2021년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해 광주극장에서 영상을 선보였던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는 당시 2021년도 처음으로 100위 안에 진입했으며 이번에는 9위를 차지했다.

2021년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

가였던 세실리아 비쿠냐는 2020년 17위로 진입한 이후 올해에는 55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예술상을 수상했던 양혜규 작가는 2017년부터 순위에 올라 올해에는 71위를 차지했다. 2016년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오토봉 영강가는 2022년 81위에서 올해 76위에 올랐다.

역대 기획자로는 2012년 제9회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이었던 마미 카타오카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1년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이었던 나타샤 진발라는 올해 처음으로 94위로 포함되었다. 이에 앞서 나타샤 진발라와 데프네 아야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은 2020년에 77위로 진입한 바 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자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작가와 기획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가면서 작가와 기획자들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민연극 ‘라이어3탄-튀어’ 공연 모습.

극단 코스모스 제공

극단 코스모스, 연말맞이 ‘프리즌·라이어’ 무대

극단 코스모스가 연말을 맞아 두 개의 공연을 준비한다.

먼저 코미디뮤지컬 ‘프리즌’이 오는 12~13일 광주청소년수련원대극장에서, 14일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20~24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각각 열린다.

‘프리즌’은 서울 대학교에서 흥행을 달리고 있는 뮤지컬로 ‘컨스 앤 로지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개그맨 켄투 정찬우가 만든 화제작 뮤지컬이다. 가수의 꿈을 안고 흑독한 준비를 해오던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면서 빚을 짊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털이를 결심하지만, 준비가 부족해

경찰에 포위된다는 내용이 줄거리다.

이어 국민 연극인 ‘라이어3탄-튀어’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6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펼쳐진다.

소심한 은행원 ‘영호’에게 갑자기 100억 4000만원이라는 일확천금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코미디극이다. 돈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간 개개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극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서로서로 속이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다. 관람 문의는 1688-3820로 하면 된다.

최동한 기자

드영미술관 ‘쓱-케치’ 전… 16일까지 어반스케치 선봬

광주 동구 윤립동 드영미술관은 2023 예정 in 프로젝트 ‘쓱-케치’ 결과발표전을 6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다.

‘쓱-케치’는 드영미술관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드로잉 작품을 제3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어반스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여행을 간 지역을 ‘현장’에서 그리는 그림이다. 집이나 카페 혹은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느낌을 그리며 그 곳의 이야기를 즉석에서 담아낸다. 드영미술관은 어반스케치를 중심으로 한 ‘쓱-케치’ 활동을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벼운 선 연습으로 시작해 드영미술관 주변의 성촌마을과 산책길, 또는 수강생이 평소 그려보고 싶었던 풍경, 특별한 경험을 간직한 공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에는 ‘쓱-케치’ 수강생 김복덕, 박혜경, 신미연, 정인선, 이지우, 양은희, 이원형, 임정란, 최선자, 황경화가 참여한다.

김도영 드영미술관장은 “수강생들이 쓱-케치를 통해 일상에서 느꼈던 소중한 행복이 관람객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그룹 ‘우리소리 바라지’ 초청공연

9일 남도국악원 대극장

국립남도국악원이 토요상설공연으로 국악연주 그룹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해 ‘입고출신(入古出新)’을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9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진도)에서 열린다.

2009년 창단한 ‘우리소리 바라지’는 전통음악 가운데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를 다듬어 활동하는 단체이다. 순우리말인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알뜰히 보살피며 돌본다는 뜻이다.

이번 공연은 풍어의 기쁨을 표현한 ‘만선’으로 시작된다. 이 노래는 거문도에서 불린 뱃노래에 타악을 결합한 곡이다.

이어 흥보가 중 박타령을 바탕으로 한 노래 ‘생!사고락?’이 이어진다. 진도씻김굿 중 초가광석과 영돈말이, 넋울리기 등의 연행 과정을 간추려 무대화한 작품인 ‘진혼’도 눈길을 끈다. 마지막으로 남부 동해안 일대에 전승되는 마을굿인 동해안별신굿의 청보장단을 모티브로,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사실을 무가 형식으로 노래

한 ‘별신축원’이 이어진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를 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국악연주 그룹 ‘우리소리 바라지’가 오는 9일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초청공연 ‘입고출신’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한 해를 보내며’ 광주시립창극단 정기공연

내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창극단의 제60회 정기공연 ‘한 해를 보내며’가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023년 계묘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했다. 창극단의 다채로운 무대를 즐길 수 있다.

공연은 산조와 민요, 한국무용, 판굿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1부와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진 창작무대 2부로 구성됐다. 2부에서 김규형 예술감독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재즈 연주자들이 모여 무대를 꾸민다. 다양한 재즈곡들과 함께 판소리 적벽가, 국악가요를 선보인다.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매

년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악의 원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재즈와 결합한 무대로 특별한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극단 제60회 정기공연 ‘한 해를 보내며’는 5세 이상 관람가로 전석 1만원이다.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